

국제식품규격, 새로운 식품기준 수용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7월 3일 끝난 연례회의에서 20개 이상의 새로운 혹은 수정된 식품기준을 받아들였다. 이 중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국제식품교역에서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가축사료, 유제품, 그리고 새로 채택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정의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codex)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색했는데 개도 회원국의 참여 증대와 위원회 조직 구조 개편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라벨링이나 파르마산 치즈(parmesan cheese)의 성분과 같이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위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의장으로 재선된 Stuart Slorach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례회의가 열린지 1년 만에 우리는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식품기준을 채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준 정립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진전을 보임으로써 국제식품규격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 오렌지의 품질과 요구 조건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식품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합작품이다. 또한 새로운 ‘우유 및 유제품에 관한 시행규정(Code of Practice on Milk and Milk Products)’은 분유(dried milk)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대체하는 한편, 우유 및 유제품의 생산, 가공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주요 소비자인 유아, 아동, 임산부 등의 건강 보호에 일조하게 되었다.

한 국가나 국제적인 식품규제시스템에서 추적가능성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추적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추적가능성이 개념 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규모 식품안전성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추적가능성의 정의를 수용한 것은 이 분야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향후 추적가능성의 적용 원칙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실시할 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건강과 영양관련 표현(Health and Nutrition Claims)’의 수정된 지침을 받아들였는데, 이 지침은, ①영양 관련 표현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보완하고, ②건강관련 표현의 정의를 내리고, ③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④각국 정부가 건강관련 표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양표시제도(nutrition labelling)와 표현에 적용되는 국제식품규격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FAO와 WHO는 스페인 정부의 도움을 받아 INFOSAN을 수립했는데, 이는 전 세계의 식품안전청들을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와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정보교환 지침(Guidelines on Information Exchange in Health Emergencies)’을

도입했는데, 이 지침은 정보교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신선식품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육류위생과 식품, 우유, 유제품, 어류, 동물 사료 내에 수의약품(veterinary drugs) 잔류에 관하여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

FAO, WHO, OIE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농가 수준에서의 좋은 사육관행(good animal feeding practice)을 준수하고, 사료생산과정에서 좋은 생산관행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식품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첫 규정을 제정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세부원칙을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도는 식용 가축에 항생제를 과도 투여하거나 잘못 투여하는 것을 방지해 항생제 내성 문제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 신용기금(Codex trust fund)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이 기금은 최빈국의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참석자들은 이미 1백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모금되었다는 사실에 환영의 의사를 표하면서도 모든 국가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배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8개 국가의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신용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27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간의 네트워크를 합리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FAO와 WHO가 창설한 기구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규격을 제정하는 기구이다. 현재 170개국에 가입해 있고, 이 국가들은 FAO와 WHO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기준제정에 관한 주요 업무는 20개 이상의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와 특정사업단(task forces)이 수행한다. Codex 집행위원회가 이 위원회와 특정사업단이 제안한 기준을 수용하고 향후 계획을 입안한다.

자료: FAO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